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벧전 1:3).**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의 빅터 프랭클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은 폴란드 남부의 아우슈비츠에 포로수용소를 만들고, 그곳에서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다. 영국의 공영 방송인 BBC는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아우슈비츠에서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유대인으로 가득 찬 기차가 아우슈비츠에 들어오면,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어김없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어느 날, 이 포로수용소에 유대인 의사 빅터 프랭클(Victor Frankl)이 다른 유대인 1,500 여명과 함께 잡혀 왔다. 그들 중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200명을 제외한 약 1,300명이 하룻밤 사이에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었다.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그의 포로수용소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노래에는 “아니 마민(אני מאמין)”이라는 가사가 담겨 있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다. 그 노래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야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야는 너무 늦게 오신다**

포로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이 이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메시야가 그들을 돕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올 것이라고 노래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수용소에서 그들은 매일 경험하는 좌절과 절망, 그리고 비참한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 이 노래를 불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기대와 달리 메시야는 빨리 오지 않았다. 그들은 노래하며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했지만, 결국 많은 유대인이 점점 소망을 잃어갔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그들의 삶은 죽음을 기다리는 무기력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빅터 프랭클은 소망을 잃어가는 유대인들을 보며 오히려 삶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졌다. 그는 메시아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올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어느 날 그는 강제 노동 시간에 일하던 중 흙 속에서 유리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그 유리 조각을 몰래 숨겨서 방으로 가져왔고, 그것을 다듬어 면도기처럼 사용했다. 그는 매일 그 유리 조각으로 말끔하게 면도를 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 때문에 얼굴 곳곳에 상처가 생겼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또한 그는 수용소 포로들에게 매일 지급되던 얼마 되지 않는 식수를 아껴 세수를 했다. 삶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기 위해 그는 면도와 세수를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유대인을 가스실로 보낼지를 결정하던 군의관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차마 그를 가스실로 보내지 못했다. 군의관들의 눈에 비친 빅터 프랭클의 모습은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과는 분명 달랐을 것이다. 그렇게 그는 수용소 생활을 이어갔고, 결국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다.

무엇이 빅터 프랭클로 하여금 아우슈비츠의 극한 환경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소망’ 때문이었다. 비록 그 소망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는 달랐지만,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그가 처한 어려움을 견디게 했다. 매일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며 삶의 소망을 잃은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즉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소망이 그로 하여금 포로수용소에서의 삶을 견디게 했던 것이다.

이처럼 소망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고, 삶을 유지할 이유를 부여한다. 따라서 소망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분명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분명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간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COVID-19로 인한 변화

2020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그동안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즉 함께 예배하고, 분반 공부하고, 예배 후 가졌던 교제와 같은 평범한 일상을 잃어버렸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꺼려졌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며 세워진 교회의 공동체성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낯선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다. 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낯선 경험도 감수해야 했다. 또 지구촌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해 가난한 국가들이 백신과

치료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보았다. 이처럼 코로나바이러스는 낯선 환경과 평범하지 않은 일상으로 우리를 내몰았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꼈고, 이러한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반영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많은 사람이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좌절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이었던 2020년 8월, 대만의 한 국적 항공사가 흥미로운 여행 상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비행기의 출발지와 종착지가 같았다. 즉 대만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몇 시간 동안 하늘을 비행하고, 다시 동일한 공항에 착륙하는 여행 상품이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에 큰 위로와 심을 얻었지만, 이것이 막히자 사람들은 더욱 답답해했다. 해외여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의 욕구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집을 벗어나 여행하고 싶어 하는 욕구는 더 강해졌을지 모른다. 대만 항공사는 사람들의 그와 같은 심리를 읽고, 비행기에 탑승해서 기내식도 먹고 면세품도 구입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내놓아 큰 호응을 얻었다. 이 상품은 대만을 넘어 세계의 다른 항공사들에도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그와 비슷한 여행 상품이 등장하여 사람들의 큰 시선을 끌었다. 사람들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야기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답답함과 불안감을 느꼈고,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했다.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와 같은 여행 상품이었다.

사람들은 우울하고,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즉 소망을 찾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런 소망을 여행 상품에서, 부동산에서, 주식 시장과 같은 것에서 찾는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소망을 찾는다. 물론 그런 것들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참된 소망일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며 지탱해 주는 소망일까? 그렇지 않다.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위로를 줄 수는 있지만, 참된 소망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인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소망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이 품은 소망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그리스도인의 소망

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다음세대가 가진 소망은?

우리의 다음세대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그들은 어떨까? 그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들은 헛된 소망이 아닌 참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까?

얼마 전, 우연히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이 나는 대화를 들었다. 그들의 대화를 처음부터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그들이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서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며 각자 자신의 집이 얼마인지, 또 근처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얼마인지를 확인했다. 그러다가 누군가에 의해 화제가 전환되었는데, 그다음 화제는 자신들이 다녀온 해외여행이었다. 그들은 누가 더 많은 나라를 여행했는지, 또 누가 더 유명한 관광지에 많이 갔는지 자랑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 깃들여 있는 돈에 대한 가치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에게 돈은 가족과의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와 여행을 보장하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었다. 돈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편안함과 여유를 제공하는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돈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없다. 부자가 되는 것이나 사회적으로 출세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소망은 한 번에 무언가를 이루거나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인생 전반에 걸쳐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할 방향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주는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 시시각각 변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소망은 무엇일까? 단언컨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다.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아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일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는 그분의 신분 때문이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살펴보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 '창조주' 그리고 '구원자'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로, 대략 주후 8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주후 1세기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로마가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한 것은 세 차례이다. 첫 번째 박해는 주후 49년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두 번째는 주후 64년 네로 치하에 있을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주후 80년대와 90년대를 통치했던 도미티안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났다. 네로와 도미티안의 박해 시기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다. 로마의 엄청난 박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런 로마의 박해가 한창이던 시기에 기록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정리한 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한다. 누가복음은 세례(침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세례(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공관 복음과 완전히 다르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며,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예수님을 소개하며 시작된다. 즉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초반은 예수님을 창조주이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묘사한다. 그리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한다.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할까? 그 이유는 당시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로마로부터 강력한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은 그들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상기시킬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진리를 밝히면서 그들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선포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서론을 기록하면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소망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다. 즉 그분은 본질적으로 피조물인 우리와 다르다. 창조주 예수님은 피조 세계에 국한되지 않으시며, 시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으신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분은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며 불변하신다. 한계가 있고, 변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또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나, 우리가 만들어 낸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들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조주 예수님은 무한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 없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창조주이시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는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그분의 신분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다를까? 만약 다르다면 어떤 면에서 달라야 하는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소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마태복음을 통해 정리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소망을 가진 자의 삶'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가 주후 65년 전후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관 복음에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 10장 3절에는 그의 직업이 '세리'라고 쓰여 있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그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로,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다. 공관 복음의 내용을 종합하면, 마태는 레위 지파 출신의 세리로서 가버나움 근처에서 헤롯 안티파스를 위해 세금을 거두었을 것이다(마 9:9, 막 2:14, 눅 5:27). 마태는 레위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구약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이 인용되어 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아주 유명한 산상 수훈을 비롯한 예수님이 하신 다섯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 마태복음

에 기록된 이 다섯 편의 설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귀중한 가르침을 준다. 즉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모습들 가운데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5:13-16).

둘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한다(25:1-30).

셋째,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28:16-20).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라고 정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환경이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조차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은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따라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망시키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분을 소망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기에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며,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올여름, 교사인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기를 기도한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다음세대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겠다고 다짐하며, 참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기도한다.